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유소아 및 소아청소년 자가격리 안내서 및 Q&A

2020.04.08.
대한소아감염학회

목차

1. 자가격리 대상자의 일반적인 생활 수칙	2
2. 소아청소년의 자가격리 수칙	
2-1. 소아의 자가격리 수칙 (12세 이상)	4
2-2. 소아의 자가격리 수칙 (12세 미만)	5
3. 자가격리 중인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의 수칙	6
4. 소아청소년 자가격리 Q&A	9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세요.
 - ☞ 도움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보호자(1인)를 지정, 그 외에 다른 사람과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긴밀한 접촉이나 대면 대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기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휴대전화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별로 사용합니다.
 -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 주세요.
 -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토사물, 기저귀 등)이 발생할 경우 소독 후 의료 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중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보건소와 연락하여 배출합니다.
- 격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 ☞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 ☞ 가족과 친구, 동료와 비대면 소통은 지속
 - ☞ 규칙적인 생활하기
 - ☞ 가벼운 실내운동,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시간 유지, 건강한 식사
 - ☞ 회복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 갖기
 - ☞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통합심리지원단(정신건강전문가) 도움받기
-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 하루 2회 (아침, 저녁)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체크 합니다
 -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 시,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지 알려주기

□ 올바른 손위생(hand hygiene) 방법

-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어야 하며, 알콜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눗물을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 그 외에 다른 사람과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 지정된 1인의 보호자는 다른 가족들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면 대화 등 접촉하지 않아야 해요. 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감염원이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격리는 나를 더 잘 관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난 후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학교와 일상에 복귀하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 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도움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긴밀한 접촉이나 대면 대화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다른 사람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격리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매일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의 발열, 증상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 1회 이상 연락이 옵니다.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중요 증상입니다.

병이 걸렸거나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14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분간 집안이나 방 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에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일들

-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하고,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난 후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 병원에 가거나 집 밖에 꼭 나가야 할 때는 어른들이 보건소에 연락하고 나서 외출하게 됩니다.
-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보보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예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해서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14일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열이 있는지 체온을 짚 거고,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 질 수도 있어요.

영·유아 및 소아 자가격리(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

(중앙방역대책본부·대한소아감염학회, 2020.4.8.)

영·유아/소아 자가격리(치료)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개인위생 관리]

-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호를 위해 가능한 보호자(1인)를 지정하고, 그 외에 다른 가족은 최대한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이 금기입니다.
 -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치료)중인 아이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아이와 직접 접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장갑 및 긴팔 가운을 착용합니다.
 - 아이의 분비물이 튀거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을 같이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확실한 방어를 위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올바른 손위생 방법에 따라 손씻기를 시행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씻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와 접촉 전·후, 아이 주변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접촉한 후,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즉시 손씻기
- 다른 가족들과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치료)자의 식기류 등은 세척도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 확진된 영유아 및 소아의 목욕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70%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 자가격리(치료) 중인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된 아이에 대한 마음건강지침
 - 격리 중인 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무섭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분이나 걱정을 표현하게 도와주세요.
 - 격리 조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정확하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나 친구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심한 불안, 짜증, 행동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정신건강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수유 및 이유식관리]

○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 엄마도 코로나19 확진환자라면 직접 수유 가능합니다.
- 엄마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하나, 직접 수유를 해야 한다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 분유수유 및 이유식

- 분유는 젓병에 들어 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젓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젓병을 사용할 경우, 젓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합니다.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 식기류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회용이 아닌 식기류를 사용할 경우,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소독 및 환경관리]

○ 자가격리(치료) 중인 아이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아이가 사용 후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소독제로 자주 닦아주세요.

○ 기저귀 또는 토사물의 관리

-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토사물을 치울 때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합니다.
-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나 토사물은 의료폐기물로 관리합니다.
- 아이가 접촉자인 경우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토사물, 기저귀 등)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중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합니다.
- 아이가 확진된 경우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담습니다.
- 이동식 배변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쓰지 말고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 장난감 관리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어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하거나, 격리 해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가정용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 격리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아이가 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또는 아이가 확진된 후 격리해제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증상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체온과 발생 증상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권태감, 인후통,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 000-000-0000)로 알려 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1판) 참조
(소독제 희석액 준비, 개인보호구 착용법, 손소독 방법, 환자이용공간 소독방법 등 참조)

영·유아및 소아 청소년 자가격리 Q&A

Q1. 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A. 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질병 경과는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Q2. 코로나19로 확진된 아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는 주로 호흡기 방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 등을 흡입하거나 손이나 눈에 직접 접촉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이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은 보호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는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에 확진된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면서 격리인 상태라면 보호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코로나19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로부터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접촉하며 직접 돌보는 보호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며, 아이의 분비물이 튀거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을 같이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부모(또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아이에게 어떤 처치가 시행되나요?

A. 아이는 보호자와 매우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음성이라면 부모와 격리를 시키고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14일간 아이에게 발생하는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영아나 엄마가 코로나19로 확진된 경우에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나요?

A. 확진된 영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엄마도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면 직접 수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유를 해야 합니다. 엄마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수유를 하는 경우 긴 팔 가운과 같은 보호구 착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아는 감염되지 않았고 엄마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라면 모유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유무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므로 엄마가 완치될 때까지 미루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유를 할 때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6.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에게 분유 수유나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분유는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일반 젖병을 사용할 경우에는 젖병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식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 이 만든 이유식을 1회분씩 용기에 담아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아이가 사용한 식기류는 따로 모아서 세정제와 온수로 세척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Q7. 코로나19로 확진된 영아가 자가격리 중일 때 아기의 기저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변이나 소변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감염시키는데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관리됩니다. 보건 당국에서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한 후 기저귀를 봉투에 담고, 이후 2차 소독하여 밀봉하여 전용용기 (플라스틱 재질)에 담습니다. 전용용기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을 하고 뚜껑을 닫아 밀폐하여 보관 하면 이후 수거가 됩니다.

Q8. 코로나19로 확진된 아이가 격리 기간 사용하는 장난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난감 표면에 수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격리 기간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하거나 격리 해제 이후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5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한 후 사용합니다.

Q9. 코로나19로 확진된 아이의 옷과 침구류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A. 아이는 성인과 달리 콧물, 구강 분비물, 토사물 등이 많아 옷과 침구류(침대 시트, 베개 덮개, 이불, 담요 등)를 자주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직물은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세제와 소독제로 70°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합니다. 매트리스나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의 세탁을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 처분하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물을 먼저 제거 후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500 ppm 권장)*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하거나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를 하면 됩니다.

Q10. 코로나19로 확진된 아이는 어떻게 목욕시켜야 하나요?

A. 보호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를 목욕시킬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목욕한 공간은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1,000 ppm 권장)**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해야 합니다.

Q11. 코로나19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가족이 있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는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최대한 자가격리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2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주 손을 씻게 하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Q12. 코로나19 접촉자일지도 모르는 가족이 있을 때, 함께 사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 및 검사를 시행합니다.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환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13. 코로나19 로 확진된 아이는 모두 입원해서 치료해야 하나요?

A. 코로나 19 확진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회복이 가능하므로,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됩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의 질병경과를 보이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설격리를 하게 되고, 증상이 심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영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 증상이 가볍더라도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Q14.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인 아이가 악화될까봐 걱정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까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A.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체온이 37.5°C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아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가질 때에는 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건소와 상의해야 합니다.

- 지속되는 발열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될 때
- 호흡이 평소보다 빨라질 때
-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별령임[flaring])가 있을 때
- 무호흡
- 청색증
-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 뚜렷한 음식섭취불량, 수유 곤란, 탈수

Q15. 아이가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그 병리와 전파기전이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질병이고,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임상적으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다시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스크와 손씻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16. 집에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같이 거주해도 되나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3월 22일 유럽, 3월 27일 미국, 4월1일부터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및 유증상자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은 가족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간 자가격리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포함한 다른 동거인들은 자가격리자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대면접촉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식기를 포함한 물품을 공유하지 않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만일 자가격리자가 코로나 19감염자로 확진을 받게 되면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장갑, 방수가 되는 긴팔 가운

**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사용 방법

- 희석배율 0.1% (1,000 ppm) 기준 (5% 락스를 1:50으로 희석)
- 희석방법(1 mL 희석액 기준): 물 1,000 mL, 5% 락스 20 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시 30분 침적

